

시집 “님의 침묵” 번역과 한용운의 조국사랑 사상과 국민 사랑에 대한 느낌

Le Dang Hoan,
Hanoi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머리말

2004년까지 한국 현대시는 베트남어로 번역한 작품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시를 베트남어로 번역할 작품 선정은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 시인과 문학연구자들에게서 많은 조언도 받았고 한국학 세미나에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한국학을 연구한 동안에 김소월, 한용운을 비롯한 한국 신시 시인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짐으로서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2004), 한용운의 “님의 침묵”(2006),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2007)을 직접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베트남 문학출판사에서 출판했다.

이 발표에는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을 베트남어로 번역한 과정과 이 시집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몇 가지 느낌을 언급하려고 한다.

1/ 한용운-만해 시집 “님의 침묵”번역

1-1/ 한용운의 “님의 침묵”작품을 선택해서 번역한 이유

- 한용운은 한국의 애국자이며 승려이면서 시인인데 시집 “님의 침묵”이 그가 쓴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만해의 문학사적 중요성이 이 시집 한권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집은 한국 근대 시인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 그의 시는 한국 시인의 한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은 자유와 평등사상, 민족사상과 민중사상으로 요약되는 만해의 불교적 세계관과 독립사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 이 시집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민중의 삶에 대해서 깊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 즉 민중 각 독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그 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이들의 경우, 이 시를 사랑의 노래로 보고 종교인들은 구원의 언어로 보고, 민족 애국자들에게는 민족 해방의 염원의 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집은 바로 만해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집이면서 당대의 시대적인 사상과 불교사상, 독립사상 및 근대적인 문학사상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님의 침묵” 번역 의미

이 시집 번역 작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베트남 독자에게는 첫째로 한국 현대시-신체시의 대표적인 시집을 소개해서 베트남-한국 문학 교류에 큰 기여가 된다.

- 베트남 독자에게 한국의 유명한 애국자이자 불교인이면서 시인인 한용운을 소개함으로써 같은 시기 베트남에 있는 애국자이자 불교적인 시인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 문화-문학의 유사성의 한 근거가 된다.

- 베트남 연구자들에게 한국학과 한국 문학 연구 재료로 되어서 그 기초로부터 보다 더 깊고, 넓이는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베트남 9개의 대학교에서 한국학-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데 매년 1500 대학생 이상이 이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육 내용 중에서 한국 문학 과목을 진행하는데 번역된 “님의 침묵” 시집이 현재 각 대학교에서 교과서와 같은 자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님의 침묵”과 한용운 사상

한 나라의 문학 작품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시 작품을 번역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시는 그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의 의미의 전달만으로 번역을 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 또한 한용운의 시는 1920년대의 언어로 표현되었고 일본침략에 대한 비난은 직접적으로 표현 못하고 은유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베트남어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무척 고생을 하였다. 아름다운 한용운 시를 베트남어로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 수 있을지 궁금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시어의 표현에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용운의 시를 읽을 때 베트남 독자들이 베트남의 유명한 신시 시인들의 시와 좋은 비교 실례가 될 수 있다. 이는 두 나라의 신시 형성배경, 내용과 표현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님의 침묵”을 통해서 한용운의 애국, 애민 사상과 베트남 시인 의 시에 함축되어 있는 사상과 비교하고자 한다.

2-1/ 한용운의 애국사상 - 한용운은 애국 불교인이다

“님의 침묵”의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해야한 내용이 바로 한용운의 애국 사상이다. 한용운이 “님의 침묵”을 쓰고 발행한 시기에는 국권이 없고 침략을 당하는 나라 비통함에 있음으로 시인이 자기시에서 애국심을 직접으로 표현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한국 근대시인 중에서 한용운이 사용한 비유 방법이 그 표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다.

한용운과 그가 산 시대는 “님이 침묵하는 시대” 였다. 그의 시에 있는 모든 내용은 침묵하는 “님”에 집중했다. “님”은 조국, 중생, 진리로 표상되는 종교적, 민족적 사상이다.

한용운의 인생을 보면 65년에 걸친 그의 생애에서 청년기 이후 40년 동안 몸과 마음을 불교에 담았다.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는 불교의 경전을 철저히 배우고 이후에 그의 모든 활동은 불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사상은 불교 형태로 표현된다. 1910년 이후 민족적 위기 속에서 한용운이 한국 불교는 반제국-조국 해방과 조국 자유 독립을 위한 새 실천투쟁에 참석해서 친일 불교 사상을 규탄-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한용운의 불교 사상이 혁명적 불교 사상이고 계몽주의 진보주의자의 눈으로 본 불교이다. 특히 당대 한국 불교에 존재하는 미신적 요소와 몽매주의적 내용을 제거시키는데 그의 사상이 매우 진보적이면서 자유주의와 세계주의의 불교적 평등을 주장했다.

불교 속에서 애국사상을 표방한 실천가로 활동하면서 한국 역사에 한용운의 사상이 영원히 남아있다. 조국 해방, 독립에의 위대한 기여는 1919년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서명이 진정한 불교사상에서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서명이 한용운이 주장한 불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증명한다. 이런 사상이 “님의 침묵”에 다 나타나고 있다.

이 시집의 모든 내용은 “님”에 담겨 있다. 한용운이 한국어 문법에 있는 존재 어미 “님”의 의미를 확장했고 지금까지 한용운의 “님”이 어느 때에 “조국”, 어느 때에 “애인”, 어느 때에 “중생” 그리고 “님”으로부터 무슨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지 연구자들이 아직 논쟁하고 또 논쟁해야 한다. 이 점을 보면 한용운의 커다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남겨준 “님”의 의미에 대한 연구 사업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매우 큰 과제를 안겨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알 수 없다”에 “님”이란 글자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읽으면 “님”이 보인다. 여기서 “발자취”, “얼굴”, “입김”, “노래”, “시” 등이 바로 “님”의 신호이다. 특히 마지막 행에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의 사상과 “님의 침묵”에 보이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고,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상이 한용운의 인생에서 나온 사상이다. 이 내용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별”에 대한 관점이다. 이별의 슬픔으로부터 만남의 기쁨이 생긴다는 사상이 바로 조국의 미래, 조국의 광복을 노래한 사상이다. “님의 침묵”이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서 조국의 독립, 자유 희망을 선언한 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으로 “복종”에는 진정한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복종” 사상이 드러난다. “당신을 보았습니다”에는 식민지 압박 하에 조국의 빈곤과 슬픔에서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곁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 모욕을 당할 때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조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한용운의 일괄적인 사상이다. 한용운은 이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투쟁했다. 이 사상이 바로 애국불교사상이다.

2-2/ 남녀 사랑- “애인”과 “조국”에 대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용운의 사상

2-2-1/ 남녀사랑과 국민 사랑:

“님의 침묵”을 베트남 말로 번역한 후 베트남 독자들이 읽을 때 이 시집이 주로 남녀 사랑에 대한 시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번역자가 아직 한용운의 사상을 모두 다 전달할 수 없는 약점도 있지만 한용운의

시에는 “님”과 “당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어느 학자가 한용운이 “군말”과 “독자에게” 시편에서 “님”이라는 개념을 해석했지만 “님만 님이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에서도 “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베트남 말로 번역할 때 표면적 의미 “연인”, “사랑”에 적당한 단어로 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님의 침묵”내용이 “연인”, “남녀 사랑”에 대한 내용도 세계적 불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랑”에 대한 개념은 “남녀 사랑”을 넘어서서 보다 더 위대하고 신성한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 “사랑을<사랑>이라고 하면 벌써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수명은 시간이 아닙니다”. “국경이 없는 사랑” “시간을 따지 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불교적인 애국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집 “님의 침묵”에서 그런 남녀 사랑의 내용을 표현한 시가 많이 있다. 여기서 “당신”과 “님”에 같은 의미로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시편 “복종”과 “선사의 설법”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복종”에 있는 “당신”과 “선사의 설법”에 있는 “님”이 “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복종하면 당신에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

“사랑의 줄에 묶이운 것이 아프기는 아프지만 , 사랑의 줄을 끊으면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픈 줄을 모르는 말입니다” . (선사의 설법)

이 시에서는 한용운의 남녀 사랑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였다. 사랑하면 애인에 의존하고 애인의 말을 복종하고 그 사랑을 끊으면 죽는 것보다 더 아프다. 일반적인 남녀 사랑에 대한 한용운의 아름다운 노래이다. 그러나 이 남녀 사랑을 지나서 여기서 “당신”과 “님”는 단순한 “애인”이 아니라 “자유” 의미도 있고 “조국” 의미도 있고 “부처” 의미도 담긴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나룻배와 행인”, “차라리”, “첫키스”, “님의 얼굴”, “최초의 님”, “수의 비밀”, “버리지아니면”, “당신의 마음”, “오셔오”, “고대”..등의 시편에서 남녀 사랑과 조국사랑을 서로 융해하여서 우리는 분별하기 쉽 지 않는 것이 한용운의 사상이다.

2-2-2/ “이별은 미의 창조”- 한용운의 새로운 발견:

이별이라는 개념이 일반적 정의에는 "서로 갈리어 떨어짐", "오래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할 일로 해서>서로 헤어짐"이다.

인생에서 제일 무섭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자별-생리"이다. 즉 살고 있을 때에 서로 헤어지는 것과 죽음으로 서로(영-음으로)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별"의 뜻에는 고통, 슬픔만 있고 행복, 기쁨과 만남과는 반대의 뜻을 갖는다.

그와 달리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는 "이별과 그 고통 속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마침내 님과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크고 빛나는 만남을 성취한 생성과 극복의 성격을 지닌다"(김재홍)고 하는데 이별은 "미의 창조이고", "진정한 사랑에는 이별은 없고 진정한 사랑의 이별, 눈물이 진주이다"고 한다.

"님의 침묵"에는 한용운이 54번에 "이별"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의 유명한 "이별"에 대한 관점은 "님의 침묵", "이별은 미의 창조", "이별", "거짓 이별", "최초의 님" 시편에 찾을 수 있다.

a)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이별의 미는 아침의 바탕 없는 황금과, 밤의 울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오 이별이여.

미는 이별의 창조입니다."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이 시에는 이별은 헤어진 사람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 눈물이 흐르도록 상실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 눈물을 극복해서 새로운 웃음이 다시 살아나고 아름다운 행복이 회복되고 생활의 "미"가 생긴다. 한용운의 이 사상이 불교적 변증법과 역설의 미학이 나타나는 사상이고 세계적으로 유일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b) 진정한 사랑에는 이별이 없다:

"아아 사람은 약한 것이다, 여린 것이다, 간사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의 이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음으로 사랑을 바꾸는 님과 님에게야, 무슨 이별이 있으랴.

이별의 눈물은 물거품의 꽃이요, 도금한 금방울이다.”

.....

“사랑의 이별은 이별의 반면에, 반드시 이별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이다.”

.....

“죽음이 한 방울의 찬 이슬이라면, 이별은 일천 줄기의 꽃비다.

죽음이 밝은 별이라면, 이별은 거룩한 태양이다.”

(이별)

한용운의 “이별”에는 진정한 사랑과 이별 사이 관계를 철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해주었다. 진정한 사랑이면 사랑에서 이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사랑에는 이별이라는 것이 “물거품의 꽃이요, 도금한 금방울이다” 이별이 있으면도 그 이별에는 “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별이 “일천 줄기의 꽃이요..”. “거룩한 태양”이다.

“이별”의 노래에서 제일 멋이 있는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 문구이다:

“아아 이별의 눈물은 진이요 선이요 미다.

아아 이별의 눈물은 석가요 모세요 찼다크다.”..

“이별”

과학적으로 보면 눈물이 산소(Oxy)와 수소(Hydro)가 결합해서 된 무미 무취 혼합물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학적 의미에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있을 때에만 흐른다. 그러나 한용운의 이별 눈물은 그렇지 않다. 그 눈물이 바로 “진이요, 선이요, 미다”, 그 눈물이 “석가요 모세요 찼다크다” .

세상에서 누가 그런 상상력, 창조력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 창조는 “낭만적 창조”도 말할 수 있다.

c)만날 때에 이별을 염려하고, 이별할 때에 만남을 기약한다:

마지막에는 이상에 언급했지만 한용운의 “이별”에 대한 내용 부분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 바로 이별과 만남에 대한 개념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님의 침묵”과 “최초의 님”이라는 시를 살필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의 침묵)

“...나는 맨 처음 만난 님과 님이 맨 처음으로 이별한 줄로 압니다.

만나고 이별이 없는 것은 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별하고 만나지 않는 것은 님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님에 대하여 만날 때에 이별을 염려하고, 이별할 때에 만남을 기약합니다.

그것은 맨 처음 만난 님과 님이 다시 이별한 유전성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지 않는 것도 님이 아니요, 이별이 없는 것도 님이 아닙니다.

님은 만날 때에 웃음을 주고 떠날 때에 눈물을 줍니다.

만날 때의 웃음보다 떠날 때의 눈물이 좋고, 떠날 때의 눈물보다 다시 만나는 웃음이 좋습니다.

아아 님이여, 우리의 다시 만나는 웃음은 어느 때에 있습니까.

(최초의 님)

표면적으로 이 시의 의미는 단순한 남녀간의 이별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누구의 이별인지 언급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이 시의 중요한 의미인 이별과 만남 사이 관계이다.

+ 만남과 떠남의 동행:

이상 두 시편 “님의 침묵”과 “최초의 님”에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 바로 만남과 떠남의 동행이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고..”

“우리들은 님에 대하여 만날 때에 이별을 염려하고”

,,“떠날 때의 눈물보다 다시 만나는 웃음이 좋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을 서로 만나서 영원히 서로 같이 있고 같이 사는 것을 희망하지만 그런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심리는 우리 생활에서 보편적인 것이다. 개인의 인생이나 가족이나 보다 더 큰 것인 국가의 존재에도 언제나 흥(번영)이 아니라 망(패)할 때도 있다. “흥이 있으면 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흥-망이라는 인생이 주관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 틀리 지 않다. 흥할 때에 망에 대해서 염려해야 망을 방지할 수 있고 망을 당할 때에 실망하지 않고 흥할 때가 꼭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한다.

이런 사상이 한용운의 “이별” 과 “만남” 개념에 다 담겨 있다. 그는 “님의 침묵”에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 관점을 말했지만 “최초의 님”에 또 다시 강조 하고 있다.

“이별할 때에 만남을 기약합니다.”

이상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용운 시의 주요 사상은 민족적 애국-애민, 인도와 결합하는 진보적인 불교사상이다.

3/ 베트남 신시 시인과 몇 가지 비교

3-1/ 베트남 시인의 애국심에 대한 시 내용

이상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시인인 한용운의 “님의침묵”의 몇 가지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베트남에서는 한용운 시인 시기에는 “신시”라고 부른 “신시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과 같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이 창작되어 전통시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신시의 내용에 비슷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는 1910년부터 일본으로 침략을 받고 베트남에서는 1879년부터 불란서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자유와 독립이 없고 국민이 노예 생활로 지내고 국권을 외국인이 빼앗은 배경이었기 때문에 신시의 내용은 주로 반침략, 애국-구국-독립 사상 내용이 많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 국가의 고통 극복 등의 주제가 많이 나타났다.

한용운과 같이 침략을 당하고 주권이 없는 베트남 시인들도 애국심을 직접 말하지 못해서 자기의 시를 통하여 애국심을 직접이나 간접적 은유(비유)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 베트남 신시 시인이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 침략자 불란서에 대한 반항 투쟁 정신도 자기 국민의 당대의 슬픔, “동물원에 갇혀진 호랑이”와 같은 원한, 고생 생활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베트남 신시 시인이 Luu Trong Lu, Huy Can, The Lu, Xuan Dieu이다 .

- The Lu (1907-1989)베트남 신시단에서 “낭만주의 왕”이라는 명칭으로 유명하다. 그는 베트남 신시 운동에서 항상 행렬의 선두에 서서 신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의 “몇 시편” 시집에 있는 “산을 그림다” 시편에서 베트남 사람이 불란서 침략 기간에 “동물원에 갇혀진 호랑이”와 같이 자유가 없고 족쇄로 속박된 노예 생활을 하며 산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 위한 소망을 키워서 투쟁해야만 조국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 Xuan Dieu(1916-1985)은 베트남 신시 시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시인으로 불리우는데 조국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겨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국의 번영이 ‘일 분(동안)’만 있으면 노예 “백년”보다 더 좋다고 하였다.

- Han Mac Tu (1912-1940)은 신시운동에서 제일 맹렬한 창조성을 가진 시인이면서 5년 동안(1935-1940) 신시를 썼지만 다른 시인의 "한 세기 동안 노력한 만큼" 베트남 후세에 많은 작품을 남겨 주었다. 그는 문둥병(나병)으로 몸이 약해지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과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정신이“피가 문필 끝에 나온 것” 처럼 자기 투쟁 정신이 담긴 시를 썼다.

- Luu Trong Lu(1911-1991), Huy Can (1919-2005)시인 들이 자기의 시에서는 베트남 국민을 항불(불란서를 반항 투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시 내용으로 “슬픔을 안겨서 울지 말고 일어나서 무리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행복한 미래, 빛이날 내일을 위해서 일어나야한다”고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3-2 / 남녀 사랑에대한 내용:

한용운과 베트남 신시의 공통되는 중요한 내용 하나는 남녀 사랑에 대한 감정이다.

한용운 시인의 사랑에 대한 관념이 “사랑도 사람의 이일이라”(님의 침묵)

“넌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군말);

한용운 시에서 남녀 사랑에 대한 내용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은유하고 남녀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인의 애국심이 그 만큼 깊다고 말하는 것 같다.

베트남 시인의 신시에서 남녀 사랑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말 할 수 있는 시인이 "서정시 왕" 이란 명칭이 있는 Xuan Dieu 이고 그다음에 Han Mac Tu, Huy Can, Nguyen Binh, Luu Trong Lu...등이다.

베트남 신시 시인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다음 시에서 알 수 있다.

“사랑이란 자기 마음이 조금씩 죽은 것이려”

“주는 것이 많은데 받은것이 거의 없다.”...

...“해가 뜨거나 꽃이 지거나 믿을 수 없고

사랑이 언제 ‘올지’..‘갈지’. 알 수 없소...”...(Xuan Dieu)

슬픔과 고통을 잘 알기 알지만 베트남 여자는 한국 여자처럼 희생하는 마음, 고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남의 사랑, 남의 행복을(특히 자기 사랑한 남자) 자기의 행복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어도 참고 살아나간다.

사랑의 말에는 그리움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희망도 있고 실망도 있고 만남이 있고 이별도 있다.

한용운은 “고대”에서“당신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합니다”라고 했다.

Xuan Dieu는 “상사”에서 애인을 그리는 마음은 “소리가 그림고, 그림자가 그림고 영상이 그리운다. 당신이 그림다 너무 그림다. 당신이여!”라고 했다.

또 Luu Trong Lu 는 “우리 사랑”에서 “당신의 눈에 조용한 설움, 말 없이 보기만 한다. 우리 애정이 높고 깊어 말해도 무궁무진이로다”라고 했다.

3-3/ 이별에대한 관념:

한용운이 “이별은 미의 창조”의 사상이 있다면 베트남 시인의 심사는 어떨까?

베트남 신시 시인들은 “이별”에 대해서 많이 말하였다. 그러나 한용운의 “이별”과 같은 관점이 그리 많지 않다. 베트남 시인의 “이별”의 원인이 남자가 싸움터에 나가거나 (The Lu, Tran Huyen Tran), 서로 사랑하다가 어느 이유로서(이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별”이 일어난다(Xuan Dieu, Han Mac Tu..). 그런 “이별”의 내용에는 단순한 남녀 사랑에 대한 “이별”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별”이 일어나면 “영원한 별리 한이 보인다”(The Lu), 서로 다시 만나기가 힘들고 만나더라도 꿈에서만 만날 수 있다.

“사랑이 올지 말라고,

당신들이 홍옥 같은 꿈에 꼭 만날 것이라고..한다”

(Xuan Dieu)

“Xuan Dieu”의 시에는 “만남에는 이별의 씨앗이 있다”고 하지만 한용운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과 같은 “구절”이 없다 :

“사랑이 언제 올지 언제 갈지 모른다....

...만남에는 이별의 씨앗이 있다 “(Xuan Dieu)

한국과 베트남이 동방 문화에 속한 나라이면서 민족적인 문화 전통에 공통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역사 연구 결과들은 말해주고 있다. 한국 시인 한용운과 베트남 시인 Han Mac Tu는 같은 시대에서 살았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고 교섭한 기회도 없었는데 “우랑 직녀”의 사랑에 대해서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용운이 “칠석”에서 그리고 있는 사랑은 우리처럼 속세에 사는 사람들의 “표현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Han Mac Tu는 시 “추정”(가을의 사랑)에서 이 사랑을 “걱정”(Tinh si)(결과가 없고 희망 없는 사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두 시인이 이 사랑에 대한 느낌은 똑 같고 묘사한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

이 사랑에는 영원한 “이별”이 있지만 또한 만날 믿음이 있다. 물론 그 만남이 눈물 속에서의 만남이고 이별을 기다린 만남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베트남 신 시인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내재해 있다.

3-4/ 자연사랑에 대한 내용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국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자연, 경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다.

모든 시인은 자기의 고향에 대한 특별한 추억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자기 가족,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고향, 조국의 자연이 바로 시인의 시적 감흥의 원천이다.

한국 근대시인과 베트남 시인은 자기 나라의 강, 산, 꽃, 자기의 집, 고향 등에 대해서 노래한 시가 많다.

한용운 시의 특성의 하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 조국 사랑에 담겨서 표출된다는 점이다. “님의 침묵”에는 자연은 “님”의 또하나의 개념에 들어가고 있다. 한용운의 시편 “알 수 없어요”, “해당화”, “당신을 보았습니다”, “비”, “금강산”, “심은 버들”, “꽃이 먼저 알아” 등을 보면 그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감화하는지 알 수 있다.

베트남 시인이 자연에 대해 그린 시편은 한국시인 만큼 많다. 몇 시인의 시를 소개하면 Nguyen Binh, Huy Can, Luu Trong Tu, Han Mac Tu 등을 예를 들 수있다. Nguyen Binh은 “이웃 님”, “강변”, “흄에서의 비”, “타향 봄”, “어머니의 설날”, “내집” 등이 있고, Huy Can은 “향기로운 촌길”, “장강”, “비” 등이 있으며, Han Mac Tu는 “고향의 사랑”, “따랏의 흐릿한 달”, “여기는 비파 촌”, “판텃.판텃” 등이 있다.

결론을 대신하여

이 발표는 한국의 유명한 근대시인인 시인-애국자-승려인 한용운의 탁월한 시집 “님의 침묵”을 베트남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된 몇 가지 소감이자 인상의 결과이다, 이를 베트남 신시에 대한 몇 가지 특징과 결부시켜보고자 하였다. 이상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 한용운의 한국 신체시의 대표 시집인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시기는 베트남에서 신시 형성 운동 시작 점(1932년)보다 한 7년 앞섰지만 한용운의 사상이 베트남 신시 시인의 사상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고 특히 침략을 당한 한국과 베트남 시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 애민심 내용 등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그 시기에 시인이면서 애국자인 한용운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 베트남 시인도 많이

있다. 당시 많은 신시 시인은 베트남 혁명 투쟁에 참석했고 1945년 (베트남 해방)후에 베트남 문화, 문학 분야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이점을 보면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를 모르지만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사회 유사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사성을 기초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나가길 기원한다.

- 한용운의 시 기법이 매우 독특하고 지금까지 아직 연구해 야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비유법으로서 그의 시에는 표면적인 의미도 있고 내면적인 의미도 매우 깊어서 외국 번역자나 연구자가 그의 시를 연구할 때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님”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해서 외국어로 번역할 때 어느 경우에 “표면 의미”로 번역하고 어느 경우에 “내적 의미”로 번역해야 할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 시집 “님의 침묵”은 한용운의 애국, 불교사상이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 이고 나아가서 작가의 사상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용운이 쓴 문학 소설작품, 불교 논설, 조국 독립에 대한 활동 등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베트남 시인들의 사상과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 사업에 많은 한국연구자와 베트남 연구자가 협력해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국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초청으로 "만해의 현대 사상과 동아시아 현대 사상 비교연구" 담론 세미나에 참석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토론회에서 일반 한국 근대시와 특별히 한용운의 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두 나라 문학자와 문학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한다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 양국의 문학 교류 관계를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한국말 자료:

1. 한용운 : 님의 침묵 ; 미래사- 2003
2. 한용운, 님의 침묵 ; 민음사- 2002
3. 조동일; 한국 문학 강의, 길벗 1995.
4. 조남익, 한국 현대시 해설, 미래 문화사, 1996.

5. 한계전...; 한국 현대시론 연구, 문학과지성사,1998.
- 6.이선이: 소월.만해의 시세계- 산사 김재홍교수환갑기념논문집;
한국현대시사연구; 시학 편집부, 2007.
- 7.김재홍: 만해 한용운과 “님의 침묵”- Manhae Han Yong Un
"The Silence of My Love" Manhae Academy- 2005
- 8.김재홍; 만해의 문학세계와 문학 사상- Manhae Han Yong Un
"The Silence of My Love" Manhae Academy- 2005
9. 한국 인터넷: www.naver.com.
- 베트남 말 재료:
10. Le Dang Hoan- Kim Ki Tae(역); Hoa Chin-tal-le -베트남
문학사-2004.
11. Le Dang Hoan (역); Su im lang cua tinh yeu - 베트남
문학사-2006.
12. Le Dang Hoan (역); Den khi hoa mau don no -베트남
문학사-2007
13. Hoai Thanh, Hoai Chan, 베트남 시인 - 베트남 문학사-1998
14. Huy Can - Ha Minh Duc, 베트남 시에서의 혁명- 교육사
1993.
15. Le Dinh Ky, 신시 - 승하길 , 호치민사, 1993.
16. Ma Giang Lan, 베트남 신시 형성과 발전 - 교육사 2000.
17. Phan Cu De; 신시 운동 - 베트남 문학사 1998
18. Tran Thuc Viet; Korea 문학- 베트남 국립 대학교사, 2006.
19. Tho moi Viet nam 1932-1945- 작가와 작품- 문학회사-1998
20. Bang Viet; 한국이에서의 동방적인 실천과 은유 특별
성에대해서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에대한 세미나 발표-2007